붙임 2 종합의견

매해 갈수록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, 경력과 활동 규모의 음악가가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있어, 한국 아티스트들에 대한 해외 주목도와 가시적인 성과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.

이번 2차 평가대상 10개 중 8개 팀이 남아시아 지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, 해당 권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집중 타게팅을 바탕에 둔 진출이기보다 주로 각 상황에 따른 주어진 기회를 적절히 활용한 사업이었습니다. 이에 따라 실제 성과 예상 측면도, (특히 아티스트 본인 주도 사업일 경우) 정량과 정성적인 면 모두 타겟 마켓의 상황이나 현실적인 근거보더 아티스트의 전반적인 기 활동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.

그런데도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참여 아티스트의 해외 문화 이해도, 언어 능력 등 해외 무대를 수화하기 위한 경쟁력과 경험은 이미 일정 수준 갖춘 경우가 많아 앞으로의 활약과 각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기대됩니다. 다만 일부 신인 아티스트나 해외 진출 경험이 드문 아티스트, 뛰어난 역량과 해외 경험을 갖추었음에도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부족한 아티스트의 경우, 더불어 해당 사업을 통해 당장 직접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 없으나 활동 기반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아티스트의 여력이나 사업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나 활동에 있어 다소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.

이같은 사업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다양한 형태의 해외 성공 사례가 이어져 실행 가능한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여러 국내 음악가의 활동 기반이 확장하길 바랍니다.